

특집 I 건강소식 지령 200호를 축하합니다.

##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결핵에도 관심을

“건강소식” 지령 200호를 축하합니다.

그동안 보건전문지로서 건강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 등을 충실히 다루어 줌으로써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 용 철  
대한결핵협회장

무엇보다도 '64년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설립될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회충과 십이지장충 등 장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어 영양실조는 물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2년도에 실시한 제5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률실태 조사 결과 감염률이 0.3% 이하로 떨어져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물론, 기생충 박멸사업에 성공한 나라로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지대한 공헌을 한 바, 귀 협회의 그간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 등에 힘입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귀 협회는 1982년 한국건강관리협회로 개칭하고 종합검진검사 사업에 착수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줌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도 큰 몫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분배 요구에 따른 개혁과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제반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시기에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거는 기대는

참으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년대 당시 결핵, 기생충 및 성병 등이 창궐하여 고통받던 시기에 국민건강관리사업을 같이 시작하여 기생충박멸사업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감염성 질환으로서 결핵은 ’65년도 전국결핵실태조사결과 5.1%의 유병률에서 지금은 1.42%로 현저히 감소되기는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완만하여 아직도 60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질병으로 남아있습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결핵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귀 협회의 “건강소식”을 통하여 결핵 환자의 발견과 예방 및 적절한 치료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여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동의 목표가 이루어 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건강소식” 지령 200호를 축하하며,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소식을 실어 국민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종합보건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믿으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강소식에  
결핵환자의  
발견과 예방,  
적절한 치료법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공동의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협·검진자 불편 상담전화

###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전화로 들려 주십시오

◎이용전화 : 080-024-8572(수신자부담)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1097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자 불편상담소 앞  
(157-016)